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8. 7. 17.(화)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해운정책과	담당 자	•과장 윤현수, 사무관 김지환, 주무관 김승찬 •☎ 044)200-5710, 5725, 5724	
보 도 일 시		2018년 7월 18(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7.(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한·중·일, 새로운 협력 과제로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도약

- 18일, 서울에서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7월 18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에서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과 허 지엔쥬ng(HE Jianzhong) 중국 교통운수부 차관, 마사토시 아키토(Masatoshi AKIMOTO) 일본 국토교통성 차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2006년 9월 서울에서 1차로 열린 이래, 3국 간 교통·물류분야의 교류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친화적 물류', '물류보안과 물류 효율화의 조화'라는 3대 목표 아래 총 12개 실천과제를 함께 추진하면서, 해상-육상 복합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상호 주행*, 물류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NEAL-NET)**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 화물차의 동력부분(트랙터)를 제외한 무동력 부분(피견인 트레일러)이 국가 간 상호 주행하는 것으로 컨테이너 상하차가 없어 화물안전 확보 및 물류시간 단축 등에 장점

** NEAL-Net(Northeast Asia Logistics Information Service Network) : 한·중·일 주요 항만 간 선박입출항, 컨테이너 이동 등 물류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로, '17년까지 13개 항만(한국 3개항, 중국 5개항, 일본 5개항) 선박스케줄 정보 공유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물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물류 분야를 공동으로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기존 실천과제를 대폭 개편한다. 기존 과제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12개 과제를 8개 과제로 통·폐합한다. 또한 3국 간 농수산물식품 교역량 증가에 따른 ‘신선물류 네트워크 활성화’, 중국의 일대일로*,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대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협력’ 등을 신규 과제로 채택할 계획이다.

*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35년간('14~'49)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재구축하여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 협력의 길을 만들고자 함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등의 공동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운송 기술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한·중·일 공동 노력’이 신규 공통과제로 공동선언문에 반영된다. 이는 스마트 운송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은 물론, 공동 국제 규정을 만들어 세계 시장과 국제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한중일 3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듯, 장관회의 종료 후 오후 2시부터는 ‘한·중·일 3국 자율운항선박 공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에는 3국 정부·민간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자율운항선박 정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3국 간 상시적인 업무협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장관회의 계기에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누리집’이 개설·운영된다. 누리집을 통해 한·중·일 교통·물류 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실천과제의 추진상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 수렴 창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한반도의 정세 안정에 따른 동북아 평화의 분위기는 3국 교통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또 하나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가 동북아 물류의 지능화·친환경화라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8.7.18(수) 09:30~13:10(오찬포함)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 * (7.17) 사전 국장급회의 / (7.18) 본회의 및 부대행사(워크숍) / (7.19) 산업시찰(부산신항)
- (대표단) 해수부차관(수석대표), 해운물류국장, 국토부 물류정책관 등 14명
 - △ (중국측) 허 지엔쥔 교통운수부 부부장 등 12명
 - △ (일본측) 마사토시 아키토모 국토교통성 대신정무관 등 15명
- (주요내용) 지난 장관회의 이후의 3국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이를 공동선언문으로 채택·서명 등

□ 주요 일정

◆ 2018. 7. 17(화)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 14:00-14:50 닐넷(NEAL-Net) 운영위원회(국장급)
- 15:05-16:10 한중일 국장급 준비 회의 개최

◆ 2018. 7. 18(수)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 09:30~11:40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본회의
 - 개회 및 기조연설
 - 3국 협력경과 보고(논평)
 - 실천과제 추진 경과보고(논평)
 - 공동선언문 채택 및 서명
- 11:40~13:10 환영 오찬
- 14:00~17:20 (부대행사) 한중일 자율운항선박 공동워크숍

◆ 2018. 7. 19(목) / 부산신항

- 09:30-10:45 산업시찰 (부산신항 홍보관 및 터미널 시설)

참고 2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요

- (목적) 한중일 3국간 물류협력을 통한 통합물류시장을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 및 안정적 물동량 창출로 3국의 경제 성장 도모
- (개최방식) '05년 우리측 제안으로 장관회의 구성에 합의하고 '06년 제 1차 회의(서울) 개최 후 2년 마다 한·일·중 순으로 개최
 - * 제1차 ('06, 한국), 제2차('08, 일본), 제3차('10, 중국), 제4차('12, 한국), 제5차 ('14, 일본), 제6차('16, 중국), 제7차('18.7, 서울 - 예정)
- (추진절차) 과제별 담당국가를 정하고 공동선언문에 선언적으로 규정된 의제를 실천과제(Action Plan)에서 구체화하여 관리
 - 추진과제 별 담당국이 주도하되, 3국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추진
 - * 우리측 주도로 현행 12개(국가별 4개) 실천과제를 11개(국가별 3개, 공통 2개)로 개편을 검토 중이며, 제7차 장관회의를 통해 개편방안 확정 추진

< 실천과제 개편(안) >

현행 A.P	현행 과제명	비고	New A.P	개편 과제명	비고
1	불합리한 물류관련 제도와 시스템, 해외 진출 시 문제점 개선(韓)	분리	1	북극항로 상용화 대비 한중일 협력 증진(韓)	현AP1 (일부)
2	동북아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日)	유지	2	트레일러 샤시(Trailer Chassis) 상호 주행 및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日)	현AP2
3	3국 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中)	유지	3	3국 물류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中)	현AP3
4	동북아 해상운송 및 물류정보 교환(中)	유지	4	동북아 해륙복합운송 경험 공유 및 협력 발전(中)	현AP4
5	물류장비표준화 추진(日)	유지	5	물류장비표준화 및 재활용 운송수단 활용 촉진(日)	현AP5 +1(일부)
6	항만 간 밀접한 협력관계 증진(中)	AP9 병합	6	항만 간 밀접한 협력 관계 증진(中)	현AP6 + AP9
7	물류보안 확보와 물류효율화 조화 방안 모색(韓)	유지	7	물류보안 확보와 물류효율화 조화 방안 모색(韓)	현AP7
8	상호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韓)	폐지	8	신선물류 네트워크 활성화(韓)	신규
9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등 협력 채널 논의사항 공유(中/공통)	AP6 병합	9	효율적이고 환경부하가 적은 물류 체계 구축(日)	현AP10
10	효율적이고 환경부하 적은 물류체계 구축(日)	유지	공통1	3국의 지역 연계 촉진 이니셔티브 관련 프로젝트 및 정책 협력	공통 과제
11	제3자물류사업 촉진여건 조성(日)	폐지	공통2	운송 기술의 4차 산업혁명 공동 노력	
12	ASEAN과 협력 가능성 모색(韓)	폐지	-	-	-